

제주 잠녀 문화 가치 인정 도 적극 나서야

임돈희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 “쪽넬은 문화개념 포함…등재 이후 유지·보전 모델 케이스 기대”
지역에서 잠녀 먼저 인정, ‘지속 가능한 발전’전제 살아있는 문화 유산으로 접근 필요 조언

등록 : 2009년 06월 10일 (수) 16:12:23
최종수정 : 2009년 06월 10일 (수) 16:12:23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 잠녀 문화’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가장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제주 잠녀 문화에 대한 도 차원의 ‘인정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칠머리달영등굿’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도 지정 문화재도 추천할 수 있다’는 문화재청의 방침에 따라 해녀노래를 대표 목록에 포함시켰다.

‘잠녀’의 무형문화재 등재 가능성을 열었다는 도의 입장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숨을 보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임돈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은 “지난 2001년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킬 때의 전례가 있는 만큼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당시 종묘제례악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하면서 ‘긴급 보호 목록’에 등재시키는 작업이 진행됐었다. 하지만 이후 음악 외에 무용과 제를 모두 포함하는 종묘제례의 등재 필요성이 부각되며 최종적으로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이란 명칭으로 등재하는 과정을 거쳤다.

임 위원장은 “해녀 노래는 전체 잠녀 문화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잠녀 문화의 가치면에서 볼 때 서두르기보다는 착실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잠녀 문화가 도 지정 문화재 등 공식적인 인증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문화재 지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탄력적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유철인 제주대 교수는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는 ‘문화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제된 문화유산이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도 조례 등을 통해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인정할 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8~9일 해녀의 무형문화유산-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와 보존대책 세미나에 참석한 윌리엄 로건 유네스코 유산과 도시화 교수(호주)는 실제 잠녀들의 물질 과정 등을 지켜본 뒤 “고령화 속도 등을 감안할 때 긴급보호목록 지정 추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진행 과정을 계속해서 알고 싶다”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원의 의지와 잠녀들의 합의가 우선
돼야 한다”며 “도 문화재 지정이 어렵다면 문화재청 차원에서 중앙문화재위원을 직접 보내 검토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제주 잠녀 문화는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보기 힘든 특수성이 있는데다 폭넓은 문화 개념
을 가지고 있다”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뿐만 아니라 유지·보전까지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관
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